



고흥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녹동(鹿洞)은 사슴의 지형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큰 사슴'인 녹동 인근에는 '작은 사슴'이라 불리는 소록도가 있는데, 이곳은 한센인이라 불렀던 이들이 오랫동안 유폐된 삶을 살았던 섬이다. 소록도 국립병원에 있는 사슴을 형상화한 벽화(왼쪽)와 역사, 문화, 관광을 품은 다기능 어항으로 변신 중인 국가어항인 녹동항.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시련과 아픔 유폐된 곳서 인권·생태·관광 나들목으로

바다 르네상스 국가 어항을 가다

〈하〉역사가 숨쉬는 항구-고흥 녹동항

항구는 역사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말은 “항구는 역사의 나들목”으로 구체화된다. 항구는 예로부터 사람이 왕래하는 문물 교류의 중심지였다. 시대와 시대가 만나고 문명과 문명이 교섭하는 역사적 공간이었다.

비근한 예로 영국의 산업혁명을 견인했던 리버풀항구, 앙코르시대의 문화를 꽃피웠던 캄보디아 프놈펜 항구는 그 나라의 역사와 오늘을 대변한다. 그뿐인가. 구 소련의 유럽 진출 전진기지였던 세바스토폴 항구, 지중해의 최대 관문이었던 이탈리아 팔레르모항구에는 유서 깊은 역사가 깃들여 있다.

항구에 특정 시대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다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축을 토대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항구의 생리다. 그러므로 바다에 가는 이들은 본질적으로 푸른 파도와 뱃고동 소리에서 명징한 역사의 실체를 보고 들어야 한다.

고흥반도 끝자락에는 지난한 역사를 담은 항구가 있다. 국가어항인 녹동항(鹿洞港), 사슴 녹(鹿) 자가 말해주듯 일대의 지형이 사슴의 형상을 닮았다. 녹동(鹿洞)에는 큰 녹동(큰 사슴)과 작은 녹동(작은 사슴)이 있다. 전자가 항구를 배후로 한 읍내 일원을 말한다. 후자는 많은 이들이 소록도(小鹿島)로 알려진 섬을 일컫는다.

“작은 사슴의 땅은 천형의 아픔을 간직한 이들의 터전이었다. ‘한센인’이라 불렀던 이들이 오랫동안 유폐된 삶을 살아야 했던 곳이다. 소록도에 가는 이들이 지난날의 역사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역사는 끊임없이 현재라는 시간 속으로 소환되기 마련이어서,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출몰하는 과거를 응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녹동은 ‘갈목음수지(渴鹿飲水之地)’로 알려져 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기 위해 찾아오는 지세라는 뜻이다. 지금의 녹동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한편의 설화에서 출발한다. 아주 오랜 옛날, 지체 높은 관리가 하인들을 이끌고 사냥을 나갔던 모양이다. 때마침 암사슴 한 마리가 눈에 띄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슴을 향해 사위를 당겼다. 사슴은 피를 흘리며 남단의 항구까지 도망친다. 양지바른 녹동이 바로 사슴이 도착한 곳이었다고, 사슴은 갈증을 풀기 위해 허겁지겁 물을 들이킨다. 사슴의 뿔에 해당하는 곳이 예전의 관청 도양현(녹동읍)이 있던 곳이라 하니 시대를 넘어 실재하는 역사의 현존을 보여 준다.

설화는 역사를 만들고 오늘의 녹동을 만들었다. 녹동은

나로도 우주센터·소록도 길목 녹동항

공원·인공섬 등 다기능 어항 변신 분주

역사·문화·관광 품은 복합항구 채비중



국립소록도병원에 있는 구라탑(救癩塔).

설화의 배경을 넘어 실재하는 항구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상상하면서도 풍부한 해산물의 집결하는 녹동항은 고흥에서 가장 번다하고 분주한 곳이다.

그러나, 잠시 역사 이면에 자리한 소록도로 들어가보자. 녹동항에서 소록도는 불과 600여 미터 거리. 녹동과 소록도를 연결하는 연륙교와 거금대교가 놓인 이후 사람들은 손쉽게 소록도를 찾지만, 이곳은 오랫동안 일반인의 접근금지 구역이었다.

일제는 1916년 자혜의원을 설립해 이곳에 한센인들을

격리했다. 그 과정에서 무수로 학대와 인권침해가 이루어졌음은 불문가지다. 격리의 고통은 육신의 병보다 무겁게 그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침윤했을 터다.

소록도 안으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보리피리 소리가 귓가를 물들인다. 누군가 청보릿대를 꺾어 피리를 부는 듯 작각이 든다. ‘문둥이 시인’ 한하운 (1919~1975)시인의 ‘보리피리’가 귓가를 물들인다.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 고향 그리워/ 필 날리리//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 어린 때 그리워/ 필 날리리”

청아한 보리피리 소리에 유폐의 아픔이 묻어난다. 검시실과 감금실은 소록도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검시실에서는 수시로 단종(斷種)수술이 이루어졌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후대를 잇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강압에 의해 수술대에 올라야했던 이들은 자신의 존재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모멸감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이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다. 시련과 고난이 클수록 그 반작용도 크기 마련이라는 얘기가. 소록도병원은 올해 100주년을 맞았다. 한 세기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넘어 역사적인 관점에서 소록도를 더 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지난 5월 소록도에서는 한센병 박물관 개관식을 비롯해 한센병의 역사와 인권 등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소록도가 역사와 인권을 근거로 생태와 문화, 복지가 살아 쉬는 복합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맞물려 녹동항 또한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지난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녹동항은 1984년 기본시설계획이 수립됐고 1994년 기본시설이 완공됐다. 뒤이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다기능 어항 개발 계획에 따라 해양관광과 수산유통 기능을 포괄하는 항구로 변신 중이다. 해양친수 공원과 인공섬, 이벤트 광장 공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

박길홍 고흥군 해양수산과장은 “현재 공사는 상부시설만 남은 상태로 정비가 끝나면 녹동항은 인근 나로도 우주센터 등 지역 명소 등과 연계해 역사, 문화, 관광의 복합 기능을 지닌 항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은 사슴”을 품은 녹동항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다. 해가 어우는 시간, 항구를 휘돌아 나온 파도가 섬을 끌어안으며 먼 바다로 내달린다. 한센인들에게 이 바다는 살아서는 나갈 수 없는, 그럼에도 너머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을 미망의 바다였을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나 처참한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에 우리들의 바다 위로 태양은 여전히 떠오를 것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유서 깊은 역사 항구

이순신 장군, 판옥선 12척으로 수군 재건

◇회진항

회진항은 장흥군 회진면에 있는 어항이다. 1999년 1월 1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

이곳에는 곳곳마다 역사의 자취가 겨겨이 쌓여 있다. 임진왜란 당시 백의종군한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을 재건한 역사적인 지역이다. 이순신은 판옥선 12척을 토대로 조선 수군을 재정비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승전보를 이어갔다. 이에 앞서 조선 성종 때 왜구의 잦은 침입을 막기 위해 회진진성을 쌓았다. 성벽에 오르면 회진 들녘과 그 너머의 바다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회진은 맨부커상의 작가 한강이 한강 시절 자주 찾은 곳으로도 알려졌다. 장흥이 고향인 그의 아버지에 따르면 한강은 회진에 있는 삼촌 댁을 찾아 뱃일도 거두고 방학을 보냈다고 한다. 작가 이정준의 고향 또한 회진인 걸 보면 이곳이 ‘문향(文鄕)’을 넘어 유서 깊은 역사적인 항구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국내 최대 공룡발자국·퇴적층 돌담

◇남도항

여수시 화정면에 있는 남도항은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 전체적인 섬의 모양이 여우를 닮았다하여 여우 ‘남(猯)’자를 써서 남도라고 불린다.

남도항은 여수 서쪽의 수산업 중심지로 인구는 많지 않은데 비해 항구는 상당히 큰 편이다. 여름철 파도를 막기 위해 방파제를 길고 높게 쌓은 터라 성곽처럼 보인다.

남도 또한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섬이다. 주변이 일곱 개의 섬으로 연결돼 있는데 기암괴석이 많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다. 그 가운데 사도(사진)는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는 섬이자 국내 최대 공룡발자국이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구상하게 됐다는 장군바위와, 등근 지붕을 닮은 동굴바위 등이 산재한다. 또한 추도에는 기묘한 퇴적층이 돌담을 이루고 있어 지구의 신비를 보여준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씨시봉 윤행주 & 김세환

(6인조 밴드) **2016 송년디너쇼**

2016. 12. 7 (수) 18시 30분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65,000 원 입장 18:3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30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

C'est Si Bon
2016 Dinner Show